

■ KAA NEWS

1. 자율심의기구 정기총회 개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월 25일 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개최한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남정휴 회장을 재선임하고, 이대훈 전 동아일보 이사를 상임 전무이사에 새로 선임했다. 또한 1999년 결산안, 200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광고심의기준 제정안을 각각 승인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전상열 광고주협회 전무, 홍우식 서울광고기획 사장, 노한성 동아일보 광고국장이 신임 부회장에 선임됐다.

2. 중요정보공개제도 시행

오는 4월부터 증권사와 부동산중개사, 학습교재판매회사 등은 광고를 할 때 상품의 실현수익률, 피해보상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10개 업종이 인쇄물(신문, 잡지, 전단)이나 방송매체(공중파방송, 케이블TV)를 통해 광고를 할 때, 상품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를 판매하는 증권투자업종은 광고일 직전 가장 최근에 발행한 2개의 상품(1개밖에 없을 경우 그 상품에 한해)에 대해 전체 운용기간의 실현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량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각종 수수료를 함께 알려야 한다. 아동용 또는 외국어 학습교재 판매회사는 구입 후 철회가능 여부,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3.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의 EBS 지원 폭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방송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통합방송법 체제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게 될 방송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새 방송법이 발효되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이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 및 주식소유 제한비율을 대폭 완화했으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조건을 명시했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비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되 KBS와 EBS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3분의 2로 경감시켰다. 한편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방침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현행대로 운동경기와 문화예술행사 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금지하도록 했다.

방송법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안은 광고 수탁수수료를 19%에서 14%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방송발전기금(공익자금)의 관리 운영권을 방송위원회로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변호사, 의사 광고제한 해제

작변호사나 법무사 등 광고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전문자격사가 내년부터는 신문과 방송 등 각 매체에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사나 병원의 광고도 등장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앤다는 차원에서 우선 변호사나 법무사, 의사 등의 사업자단체들이 규정한 광고제한조항을 대상으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광고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 전문자격사가 광고를 통해 서비스나 요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외에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불필요하게 차단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확산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구매, 결제, 배달, 교환, 환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전자상거래 절차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또 회원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명문화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회원정보 관리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주문을 받은 물건을 배달하면서 별도의 상품 배달료를 요구해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배달료 부담한도를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6. 화장품 경쟁제품 비교광고 가능

오는 7월부터 기능성화장품의 효능광고는 물론 경쟁제품과의 비교광고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약사법에 포함돼 있던 화장품을 별도로 떼어내 관리하기 위한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곧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피부 멜라닌색소 침착을 방지하거나 얇게 하는 미백화장품, 주름살 개선 제품, 피부를 곱게 태우기 위한 선풍용품,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경쟁제품과의 비교광고도 허용했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거나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특정제품을 지정 또는 공인하거나 추천한다는 내용의 광

고는 금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화장품 원료와 규격 등을 관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7. 화학전문 포털사이트 설립 참여

LG정유가 국내 13개 화학 및 화학관련 상사를 주축으로 하고,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6개국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화학전문 포털사이트인 켐크로스닷컴(<http://chemcross.com>)의 설립에 참여한다. LG정유 허동수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한화석유 등 국내 13개사와 일본 제온 등 아시아 17개사 최고 경영자들은 2월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켐크로스닷컴을 자본금 700만 달러 규모로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켈크로스닷컴은 참여 회사들이 최고 85만 달러까지 투자, 전세계 이-비즈니스의 중심지인 미국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오는 7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LG정유는 미국의 서노코와 유럽의 토탈피나 등 대형업체들도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500개 이상의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구축될 것이며, 내년에 나스닥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 삼성전자 브랜드가치 세계 33위

삼성그룹은 세계적 브랜드 평가기관인 인터브랜드에 삼성 전자제품 브랜드의 가치 평가를 의뢰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인터브랜드가 작년 6월에 실시해 발표한 세계 브랜드가치 상위 60개 업체 가운데 32위인 펩시콜라에 이어 33위에 해당된다.

인터브랜드는 2년마다 세계브랜드가치 상위 60개 업체를 발표하고 있으며, 작년 6월 순위에서는 코카콜라가 브랜드 가치 840억 달러로 1위에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570억 달러) IBM(440억 달러) 제너럴일렉트릭(335억 달러) 포드(332억 달러) 등이 5위권에 들었다. 삼성은 이번 브랜드 가치 평가를 계기로 기업가치 형성의 핵심요소인 브랜드에 자산개념을 도입, 본격적인 브랜드가치 관리에 나서 2003년까지 삼성 브랜드 가치를 삼성전자사가총액(41조원)의 50% 수준인 200억 달러로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 MBC에드컴 주주총회 개최

MBC에드컴은 3월 6일 문화방송 소회의실에서 제26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일부 개정, 임원 선임, 비상임 감사 선임 등을 의결했다. 정관일부 개정의 건에서는 프로모션 영역 확대를 위해 사업목적에 각종 전시·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 스포츠

마케팅 기획제작 등 일체의 관련사업, 테마파크 기획 및 설치, 부동산 컨설팅 및 컨벤션 사업, 각종 문화예술 행사·공연 및 이벤트 사업에 대한 인력공급업,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했으며, 이해걸 이사를 상무로 김덕규 이사대우를 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10. 한국통신 인터넷 전문기업 설립

한국통신은 모바일 인터넷 전문 사내 벤처기업인 한국통신모비텔을 설립했다. 한통모비텔은 3월부터 휴대폰 위치확인서비스, 휴대폰 광고서비스, 각종 위치중속정보서비스, 게임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통모비텔은 서비스를 위해 5개 이동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전국 규모의 광고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광고업체와 제휴를 추진 중이다.

11. 작년 광고비 4조 6,205억원으로 집계

제일기획은 99년도 국내 총 광고비를 4조 6,205억으로 집계,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4대매체 광고비가 3조 6,027억원으로 38.1%, 광고제작비가 1,814억원으로 34.1%, 옥외 및 SP광고비가 6,271억원으로 10.1%, 뉴미디어 광고비가 2,093억원으로 22.9%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32.6%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간 광고비 점유율은 신문이 39.1%, TV가 32.3%, 4매체 광고제작이 3.9%, 뉴미디어가 4.5%, 옥외 및 SP가 13.6%, 라디오가 3.8%, 잡지가 2.8%를 나타내어 신문과 TV가 전체의 71.4%를 차지, 전통적인 대중매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12. 디킴스 온네트와 미디어비즈 출범

온라인광고 전문회사 디킴스는 애드서버 개발업체 온네트와 손잡고 합작사 미디어비즈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디킴스의 풍부한 온라인 광고 경험과 온네트가 로열티 없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애드서버를 이용하여 미디어비즈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매체대행 시장의 선두 미디어렙으로 단숨에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